NEWS
broadcasting & technology vol. 283
방 송 계 동 향

정리. 방송과기술 편집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19년 2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지난 6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에서 2019년 2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방송기술인상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매 분기 수여되는 상으로 총 9명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올해 2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강구훈(CJB) △김종환(SBS) △김희수(OBS) △박경준(YTN) △유의정(CBS) △이범석(EBS) △이상열(KFN) △이주용(MBC) △조해성(KBS)

tbs

특집 공개방송 진행

tbs는 창사 29주년을 맞아 6월 14일 오전 7시부터 3시간 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규리의 퐁당퐁당' 애청자분들을 모시고 tbs 사옥 다목적홀에서 특집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FM라디오와 tbsTV에서 송출되었고 유튜브 동시접속 인원도 기록을 세우며 성황리에 마쳤다.

CBS

CBS 제21대 노조 출범

CBS 제21대 노조 박재홍 위원장 임기가 6월 3일 시작했다. 박재홍 위원장은 임기 첫날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꿈이 있는 노동, 노동이 행복한 CBS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대 노조 사무국장은 CBS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사무국장으로 보도국 윤지나 기자가 맡았다.

아리랑국제방송

보이는 라디오 인프라 개선

아리랑 라디오는 기존 저화질 보이는 라디오 인프라 시스템에서 고화질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선 성과로 보이는 라디오 최초 고화질 스마트폰 게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포맷 방송 실현과 무선 모바일 프로덕션 키트를 활용한 역동적인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 가능하게 했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AI 서비스 ‘skylife AI’ 출시

KT스카이라이프의 안드로이드UHD ‘sky A’와 구글의 AI 스피커 ‘구글 홈 미니’가 만나 ‘skylife AI’로 새롭게 거듭났다. 무엇보다 한층 더 강화된 Voice Match 기능으로 최대 6명까지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글 홈 미니’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12개 언어를 인식하며 자동 통역 서비스도 가능하다. 향후 스카이라이프는 구글과 콘텐츠 검색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 편의향상을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BS

노원구-EBS, 수학문화 대중화 업무협약 맺어

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 박치형 EBS부사장(오른쪽)

6월 18일 EBS와 노원구가 ‘수학문화 대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노원구가 조성 중인 수학문화관 내 오픈영상실에 EBS의 완성도 높은 수학 관련 영상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EBS에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기획 및 홍보’에 상호 협력, ‘노원수학문화관 전시 및 영상물 상영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 공급’ 등이다.

MBC

2019년 MBC 방송기술인협회 정기총회 및 방송기술인상 시상

MBC 방송기술인협회는 2019년 6월 17일 상암 MBC 본사 대회의실에서 MBC 방송기술인협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경과를 보고하고 예결산 심의를 마쳤다. 이와 더불어 MBC 방송기술인상 시상을 하였으며, MBC대구의 류동원 협회원과 MBC경남의 우동일 협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관방송사로 중계

국제방송센터 IBC 전경

7월 개최되는 제18회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MBC는 주관방송사로 선정되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현재 시스템 구축 마무리 작업 중이다. 국제방송센터는 6월 27일 개소식을 했고,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에 수영대회를 중계한다.

BBS

BBS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선상신·최윤희 추천

BBS 불교방송 차기 사장 후보에 선상신 현 불교방송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이 복수 추천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6월 19일 서울 다보빌딩 진흥원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후보로 선상신 사장과 최윤희 국장을 복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선상신 현 사장의 임기는 9월 26일까지다.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은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보도국장을 역임해 2015년 9월부터 불교방송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은 불교방송 공채 2기로 입사했으며, ‘거룩한 만남’ ‘무명을 밝히고’ 등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했으며 편성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OBS

OBS 조경환 신임 기술국장 임명

OBS는 신임 기술국장에 조경환 부장을 2019년 6월 17일 자로 승진 및 발령했다. 조경환 기술국장은 2007년 OBS 개국 시 연주소 송출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였으며, OBS 기술기획 팀장 및 경영지원 팀장을 역임하는 등 기술기획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왔다.

OBS경인TV · KTV국민방송 업무협약 실시

OBS 경인TV와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이 지난 5월 30일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교환, 영상자료의 상호 지원과 협조, 아카이브 정보 공유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KBS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방송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방송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한 가운데 KBS와 행정안전부 상황실 간 개통한 핫라인 점검 및 스마트폰으로 방송현장과 스튜디오를 가상 연결하는 스마트폰 활용방송'도 참관했다.

YTN

YTN 노조, 김호성 YTN 라디오 상무 해임 공론화 나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6월 19일 오전 11시 상암동 YT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인 YTN 라디오 이사회는 김호성 상무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호성 상무는 YTN 창립 멤버이자 초대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12년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기명 성명을 발표하고 좌천됐다.

그러나 2015년 '낙하산 밀실 인사' 논란이 일었던 조준희 사장 시절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된 이후 YTN 총괄상무로 영전했다. 2017년 조준희 사장 사퇴 이후, 사장직무대행의 신분으로 사장 공모에 출마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으며, 2018년 최남수 사장 퇴진 국면에서 최 사장과 함께 퇴진 요구에 직면했다. 최 사장 사퇴 이후 다시 사장직무대행을 맡은 김호성 상무는 '새 대표이사가 오면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YTN의 상무직만 내려뒀을 뿐 자신이 겸직하고 있던 자회사 YTN 라디오의 상무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푹&옥수수 통합 O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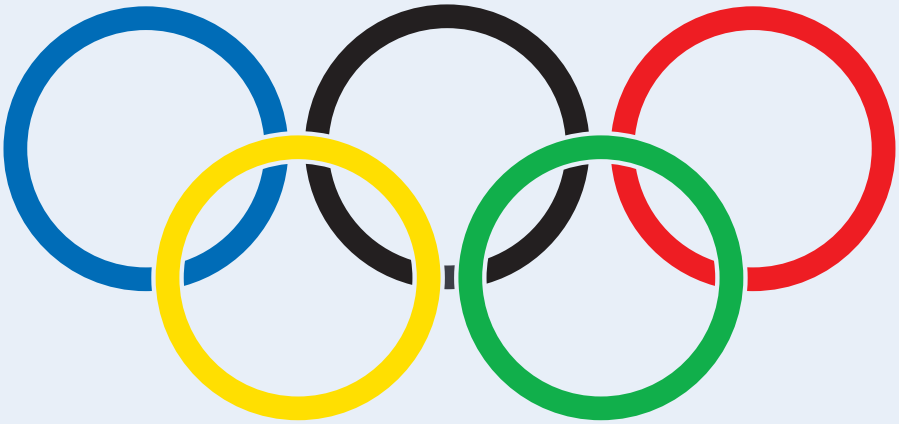
통합 법인 대표에 이태현 전 KBS 국장 선임

국내 지상파 3사 콘텐츠연합플랫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pooq과 SK브로드밴드 옥수수 통합한 법인 신임대표로 이태현 前 KBS 콘텐츠사업국장이 선임됐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지난 5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이 대표를 선임했다.

통합 OTT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되면 오는 9월 신규 브랜드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이 대표는 "통합 OTT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업계 역량 융합의 상징"이라며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국가대표 서비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JTBC, 2026년~2032년 올림픽 중계권 획득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훼손과 국부유출 우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6월 4일 오후(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중계권 관련 조인식을 갖으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JTBC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과 2026년 동계올림픽(2019년 6월 24일에 개최지 결정),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해 이 기간에 열리는 유스 올림픽 대회에 대한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JTBC의 무모한 국부유출 시도는 즉간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JTBC가 중계권을 획득할 경우 해당 기간에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직접수신가구는 관련 중계를 볼 수가 없게 되며, JTBC가 이 중계권을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역시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컨소시엄인 '코리아풀'은 JTBC에 공동입찰을 요청했으나 JTBC가 이를 거절하고 공동입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협회는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전체가구수의 90%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 필수임에도 개국한지 8년도 안된 방송사인 JTBC가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무료 직접수신을 택하고 있는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과 유료방송 가입자만이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JTBC는 방송권 비용절감을 위한 코리아풀 협상단 참여제의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응함으로써 과도한 스포츠 중계권 획득 경쟁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온 스크럼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방송사가 다시 흩어져 공격적인 중계권 확보 다툼에 나선다면 올림픽 중계권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막대한 국부유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송협회는 "IOC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올림픽 중계 경험이 전무한 방송사에게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올림픽 중계권을 넘기려는 도를 넘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주무부처인 방통위 또한 진정한 국익과 시청자 복지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월간 방송과기술 광고업체 초청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지난 6월 21일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에서 방송과기술 광고주를 위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방송기술에 관한 교육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방송장비업체이면서 방송과기술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인엠엔씨와 비주얼리서치, 비덴트, 디지캡, 파나소닉코리아, 아이젠시스템즈 등에서 25명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경청했다.

인사말 중인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세미나에서는 서상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처장이 본 세미나의 개최 의의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되었다. 인사말에서 이 회장은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방송기술 관련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방송장비업체의 현실에서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광고주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오늘의 자리를 빌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장비업체가 더욱 상생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길 바라며, 관련 세미나를 지속해서 개최하고자 한다.”라며 파트너쉽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 김재훈 MBC 장비관리팀 차장은 ‘방송 신호의 이해와 활용’에 관해 설명했으며, 점심 식사 후 이어진 오후 강의시간에 이상진 SBS 정책팀 차장은 ‘지상파 UHD 방송 추진 현황과 미디어 변화’에 대해 강의하며 “장비업체에서도 알고는 있으시겠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쉽게 내용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이문식 KBS 미디어기술연구소 팀장은 ‘IP 기반으로의 제작 환경 변화’에 대해 관련 표준과 동향을 설명하며, 업체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이슈를 강조했다.